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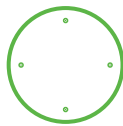
참 재미있는 가게 이야기



참 재미있는 가게 이야기

펴낸날	2015년 12월
발행인	홍명희
기획	아름다운가게 홍보팀
주소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62
전화	1577-1113
팩스	02-730-0525
홈페이지	www.beautifulstore.org
디자인	slowalk

참
재미있는
가게
이야기



CONTENTS

05 인사말

- 06 첫 번째 가치, '시간' 08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활동천사
12 아름다운 활동천사, 아름다운 청춘!
14 자원봉사, 시민이 주인으로 사는 원동력
16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 20 두 번째 가치, '추억' 22 열세 살의 아름다운가게, 추억을 남기다
24 릴라씨의 추억
26 세상을 바꿀 이야기를 싣고
28 나의 비타민, 러브레터!
30 2015 아름다운가게 기증 사연

- 32 세 번째 가치, '친구' 34 아름다운가게가 꿈꾸는 파트너, 뷰티풀펠로우
38 두 남자와의 놀라운 인연
40 시와 아름다운가게
42 함께라서 더 즐거운
46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착한 밥상 이야기

- 49 가게 이야기 50 늘 고맙습니다, 활동 천사님!
52 아름다운가게 소식
54 매장 오픈 / 이전 오픈



표지 이야기

아름다운가게 성남중동점 활동천사
2015년 8월 활동천사캠프 기념사진.
왼쪽부터 장창호, 김경자, 정강숙,
조홍숙 활동천사

우리가 함께한 세월, 그 안에 새겨있는 추억,
곁에 있는 친구 등 이와 같은 가치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세상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를 이끄는 원동력 역시
‘가치’의 힘을 믿는 데서 비롯됩니다.



2015년 한 해가 저물고, 아름다운가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1년 동안의 기업 성적표를 발표합니다.
기업에게 성공이란 이윤을 얼마나 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가게는 조금 다릅니다. 아름다운가게에게 성공이란 ‘공익적 성과’를 뜻합니다.
즉 사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한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판단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름다운가게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수치’는 한 해 자원활동 참여 인원, 자원활동 참여 시간,
매장을 방문한 고객 수 등 아름다운가게의 활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여’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이로운 사업을 펼침으로써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가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나요?”
지갑이 얇아지고, 현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한 탓이겠지요.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가치’입니다.”

세상에는 억만금을 지불하고도 얻을 수 없는 가치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 그 안에 새겨있는 추억, 곁에 있는 친구 등 이와 같은 가치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세상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를 이끄는 원동력 역시 ‘가치’의 힘을 믿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년에도 많은 천사님과 함께,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이사장

홍영희



첫 번째 가치, 시간

“‘시간의 힘’을 아시나요?”

모든 일은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되고, 바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이다. 아름다운가게는
이와 같이 ‘시간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 4시간이 모여 1,500시간이 되기까지
무려 10년이란 시간 동안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해온
활동천사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름다운가게의 자랑스러운 얼굴, 활동천사.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활동천사

교육사업국 이동영 국장

혼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마음먹은 것을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둘씩 실천에 옮길 때 세상은 비로소 서서히 움직인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아름다운가게는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한다. “사용하던 물건을 기증하고, 소박한 재능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세요.” 아름다운가게는 이러한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칭한다. 그중에서도 자신의 시간을 나누는 ‘활동천사’는 아름다운가게의 대표적 자산이다.

세상을 바꾸는 네 시간, 자원활동!



“돈 이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미소를
내어주고 정성껏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을 감동시키는 봉사자들을 아쉬워합니다.”
- 마더테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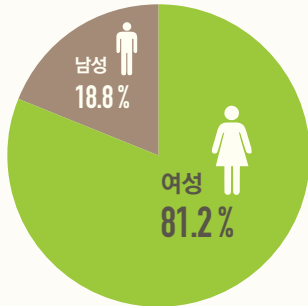
아름다운가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네 시간의 자원활동 참여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활동천사다.

라틴어 ‘Voluntas(자유의지)’에서 유래한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自) 원하여서(原) 받들고(奉) 섬긴다(仕)’는 뜻으로써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선의 의미를 넘어 자원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모두가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인류 발전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민활동가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그들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자원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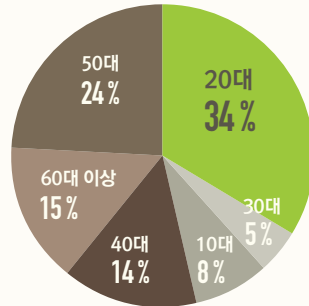
이에 더불어, 자원활동을 실천하는 ‘활동천사’는 능동적 참여에 의미를 둔 ‘활동’과 선한 이들을 일컫는 대명사인 ‘천사’를 붙여 만들어진 아름다운가게만의 네이밍이다.

활동천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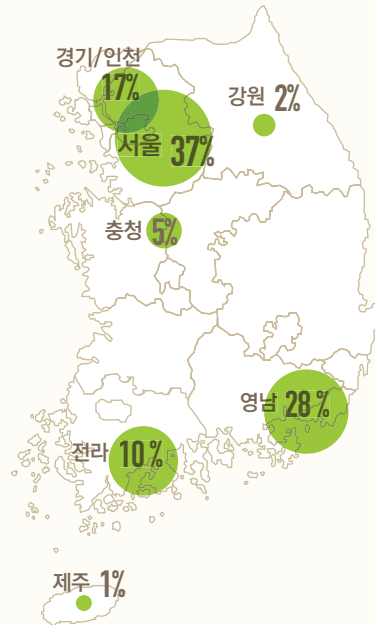
0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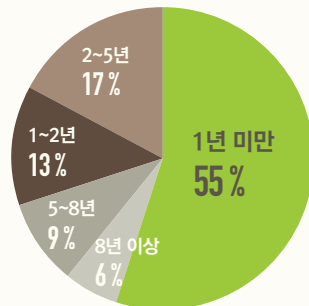
0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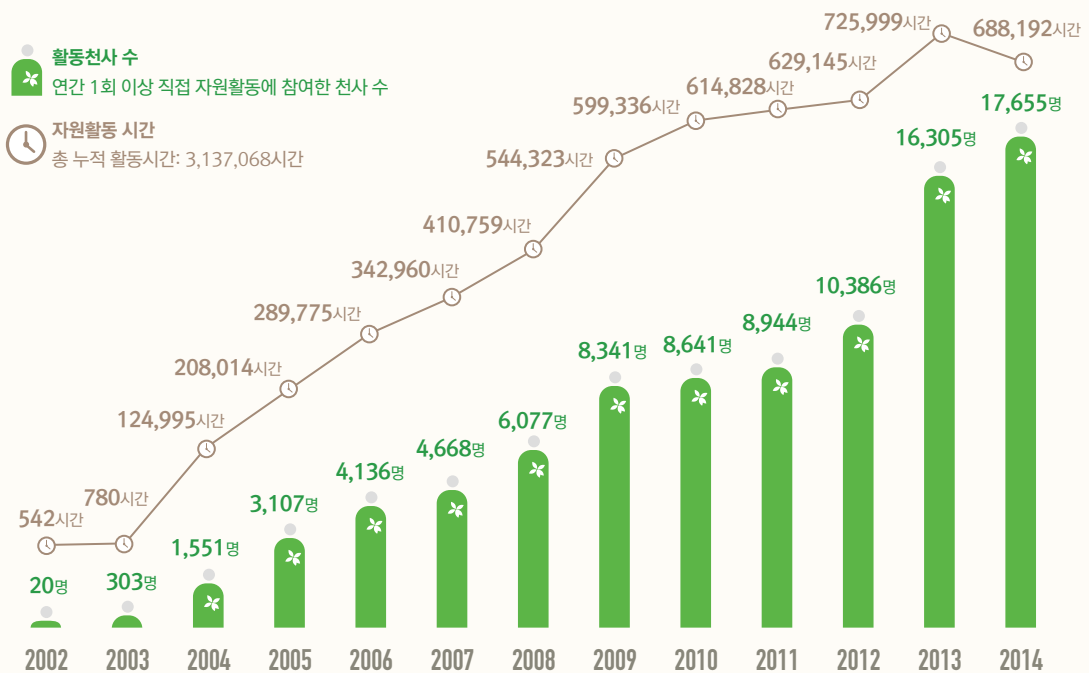
03 지역



04 지속기간



05 연도별 참여 인원 및 활동 시간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선한 사람들’을 뜻하는 아름다운가게의 활동천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아름다운가게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모두 한결같다. 매월 임대료를 50여 명의 시민이 모아 기부하는 매장, 환갑잔치를 매장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조출하게 여는 활동천사님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분당이매점 10주년 기념행사 당시 모습.

2005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주재숙, 박선자 선생님은 이날 기념행사와 함께 본인들의 환갑잔치를 열었다. 일반 환갑잔치와 달리, 주인공들이 직접 하모니카 연주를 하고 축하하러 와준 손님들에게 밤새 만든 샌드 위치를 대접하기도 했다.

활동천사 이야기



분당이매점 주재숙 활동천사 ♡ 활동기간: 10년 7개월 ⌚ 활동시간: 1,812시간

“아름다운가게에서 활동하다 보니 재사용, 나눔, 순환 등 아름다운가게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게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당이매점 박선자 활동천사 ♡ 활동기간: 10년 7개월 ⌚ 활동시간: 2,522시간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사용된다는 점이 획기적이어서 활동천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초창기에는 나눔과 순환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죠. 이젠 아름다운 가게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광명하안점 백미라 활동천사 ♡ 활동기간: 8년 7개월 ⌚ 활동시간: 3,930시간

“40대가 되기 전에 무언가 뜻깊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칭찬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민망해요. 제가 있는 광명하안점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다녀가는 편인데, 그들에게 아름다운가게는 언제나 편하게 다녀갈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더 책임감이 생깁니다.”



송파점 신소연 활동천사 ♡ 활동기간: 2년 9개월 ⌚ 활동시간: 289시간

“대학생 때 사회봉사로 처음 아름다운가게와 인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취업하고 1년 정도 지나고, 주말에 늘어져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어요.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건 저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자부심 때문이에요. 직장인은 학생들과 달리 주말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 그런데 그 시간을 빼서 자원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자부심입니다.”

안성점 윤남희 활동천사 ♡ 활동기간: 4년 11개월 ⌚ 활동시간: 907시간

“40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안성으로 귀농했어요. 활동천사이면서 환경교육 강사이기도 해요. 분리수거 실천하기, 개인 컵 가지고 다니기 등 환경보호를 몸에 익히는 데 1년이 걸렸어요. 아름다운가게에서 활동천사로 일하는 것 역시 환경보호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대전탄방점 서권한 활동천사 ♡ 활동기간: 10년 ⌚ 활동시간: 1,456시간

“퇴직 후, 자원활동을 시작했어요. 매장에 있으면서 연령, 계층, 성별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아닌 상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 하다 보니 기분도 좋고요. 그래서 퇴직한 친구들한테 등산 다니지 말고 자원활동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부산사하점 최순화 활동천사 ♡ 활동기간: 1년 4개월 ⌚ 활동시간: 155시간

“딸과 함께 자원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나중에,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어디서든 사랑받았으면 하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죠.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매장에 오기 전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일과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고 있으니, 여러모로 참 즐거워요.”



여가 활용, 새로운 배움의 기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등 활동천사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다양하지만 참여 이후, 환경보호 실천(88.9%), 기증·기부 경험(69%), 타 단체의 자원활동 참여 기회 마련(67.8%) 등 스스로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2014 아름다운가게 활동천사 만족도 조사 결과)

아름다운가게가 지난 13년간 쌓아온 성과를, 매장의 개수나 매출액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13년간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에 참여해온 7만여 명의 활동천사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매장, 되살림터, 야외 행사장, 사무실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5,000여 명의 활동천사들은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 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아름다운가게의 사회적 성과를 매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선한 마음을 전파하는 활동천사들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타인의 삶에도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임이 틀림없다.

아름다운 활동천사, 아름다운 청춘!

자원활동센터 김정현 팀장

광진자양점 활동천사

정민수

199시간
30분의
시간 나눔

활동기간: 2014년 6월 13일~2015년 11월 5일



“일주일에 하루 네 시간,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아름다운가게 활동천사. 마음이 움직여 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찾던 중 아름다운가게를 만났다. 그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끈기 있게 이어나간 경험이 별로 없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아름다운가게 활동천사로 함께 하면서부터,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 그 일에 푹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경험인지 깨달았다고 한다.

“활동을 하면 즐거워요. 즐거우니까 계속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겼어요.”

아름다운가게 매장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진다. 일주일 네 시간, 그는 오히려 얻어가는 게 많다고 한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는 아름다운가게에서의 시간. 스물네 살 청년에게 아름다운가게는 어떤 의미일까. 아름다운가게 활동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의외의 답변이 돌아온다.

“제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때 제가 봉사활동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오만한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긴 세월, 더 큰 진심으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하는 활동천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아름다운가게에서의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는 매주 공장 시간 중 한 시간을 투자



《1년 전 겨울방학 때는 친구들과 군고구마 장사를 하기도 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일이었다.》

해 학교 내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기획했다. 여러 사람이 작은 힘을 보탠다는 뜻의 십시일반(十匙一飯)에서 의미를 빌려 ‘십시일반’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명을 만들었다. 내용은, 학교 내에서 봉사하고 봉사시간 대신 식권을 받아 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기부하는 것이다. 맨 처음 한양대학교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건국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7개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남을 배려하는 게 습관이 된 그는 꾸준히 기증을 실천하는 시민들을 위해 ‘기증 포인트 적립 앱’을 개발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만큼 아름다운가게를 향한 애정도 남다르다. 그 애정 속에는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가게를 꾸준히 사랑해줬으면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기증 횟수가 점점 늘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가게를 더 많이 찾지 않을까요? 꼭 앱 개발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가게의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름다운가게를 향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정민수 활동천사. 그와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욱 기대된다.



457시간의 시간 나눔



활동기간: 2012년 8월 18일~2015년 11월 2일

논현점 활동천사

김 환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김 환 활동천사. 그래서 아름다운가게와의 인연은 더욱 쉽게 찾아왔다. 매장 수익금을 통해 소외 이웃을 지원하는 아름다운가게의 소식을 접하자마자 활동을 결심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 구매천사, 기증천사 등 다양한 사람을 접할 수 있다는 설렘, 단지 봉사활동이 아닌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전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권하고 있어요.”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던 그에게 하루 네 시간, 꼬박 서서 일해야만 하는 매장에서의 체험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쌓여갈수록 아름다운가게 안에서의 활동을 단지 육체적 노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기자를 꿈꾸고 있는 그에게 아름다운가게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주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전 충분히 다 들은 다음 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매니저, 기증·구매 천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매장에서의 활동은 그의 작은 습관까지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 안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운 그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감동을 하곤 한다.

“단골 구매 천사님이 저를 알아봐 줄 때 가장 기분이 좋아

요. 그리고 아름다운가게라는 플랫폼 안에서는 연령, 직업이 달라도 서로 교감할 수 있어요. 상대방과 교감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유난히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은 눈치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자제를 독려하는 아름다운가게의 뜻에 따라 집에서 사용하는 장바구니를 활용하는 천사님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는 다소 들떠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같아요. 그 변화의 순간에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그에게 '시간'이란, 1분도 허투루 흘려보내기에 아까운 것이지만 이제 아름다운가게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평생 할 일을 찾게 해주어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까지 전한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언제까지나 활동을 멈추고 싶지 않다는 그에게 아름다운가게란 어떤 존재일까.

“다섯 글자로 표현할게요. '논현점 내 것!'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활동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거예요.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자원봉사, 시민이 주인으로 사는 원동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최민희** 부장

“사회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건 국가나 선생님들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실시한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인터뷰 내용이다. 자원봉사는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문제를 실현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를 떠올리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자선적 행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것은 비단 학생들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분야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일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다수가 행복할 세상을 꿈꾸며 살아간다. 이것은 바로 공익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반드시 결과가 크고 위대한 것만이 공익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일상 속에서도 그 가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원봉사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적 목적으로 펼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살아가는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론, 교육, 문화, 환경, 공명선거, 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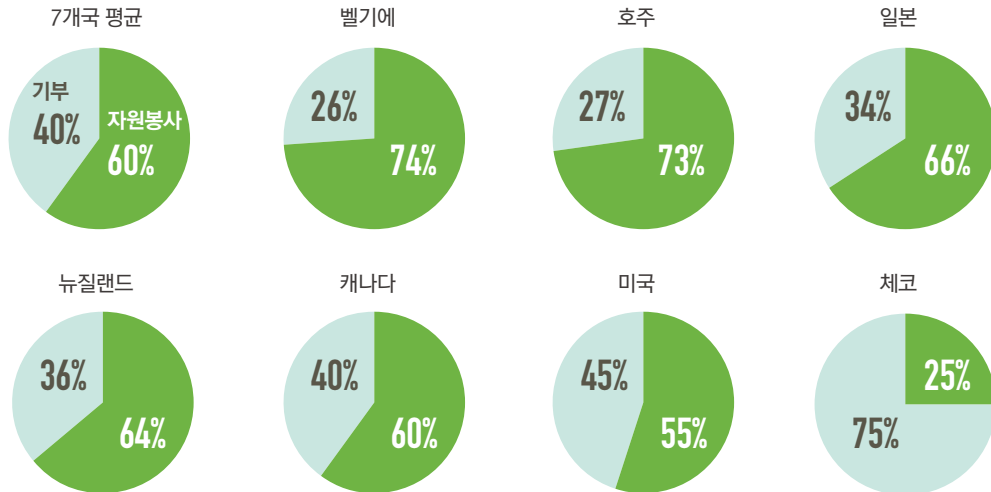
인권 옹호 등 공익성을 기반으로 일상 속에서 시민을 만나고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참여의 행위를 포함한다.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하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배려를 시작으로, 일상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몸소 실천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사는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원봉사는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 가는 행위이다. 이것은 자원봉사의 중요한 가치인 ‘자발성’이 따른다는 의미이다. 자기 삶의 터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시민성의 가치와도 일치한다.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실천해나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와 시민성은 일맥상통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서로 간의 신뢰, 네트워크 등 협동을 이뤄가며 생산해내는 사회적 자산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못지않은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실제로 여러 국가의 통계자료를 보면, 자원봉사 참여가 높은 국가가 정부와 타인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 또한 자원봉사의 시간 기여와 금전적 기부의 경제적 가치 차이도 평균 6:4로 자원봉사활동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국가별 자원봉사의 시간 기여, 기부의 금전 기여 비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2012.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2013~2017) 최종연구보고서(Salamon, L. et al. 2007. 'Measuring Civil Society and Volunteering.' Working Paper No.23, Baltimore: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재인용)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타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기발전을 위한 경험과 기술의 기회 또는 도덕적 의무감에 시작하기도 한다. 참여 동기가 어떠한든, 활동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시간과 경험, 재능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갈망한다. 공동체적 삶으로서의 실천적 행위인 자원봉사활동은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아름다운가게는 과도한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했고, 그 대안으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세상을 잇는 관계성에 주목해 왔다.

자원봉사 참여 현장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아름다운가게의 활동천사들처럼 개인과 타인의 관계성에서, 자원봉

사자이자 시민으로서 삶의 문제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대안적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가 이타성이나 호혜성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역할로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자원의 순환이라는 대안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이미지는 단연코 자원봉사자들이다.

자원봉사는 세상을 잇는 징검다리이자, 그 속에서 시민을 만나고 시민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한 해 동안 아름다운가게에서 활동해 오신 1만 8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아름다운가게의 주인으로서 상징성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인공인 활동천사님들께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활동천사
대표단을
소개합니다

활동천사대표단이란?

아름다운가게는 전국 120여 개의 각 매장에는 한 명의 대표 활동천사가 있다.
그들은 매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가게의 주요 사업 및 정책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신제주점 이 홍 선생님

마음이
익어가는
462시간



2013년 6월, 당시 65세의 이홍 선생님은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자원활동을 결심했다. 마음속에만 있던 생각을
실천으로 행하고자 발길을 향한 곳은 바로
아름다운가게 신제주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나눔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이 홍 선생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안에
커다란 진심이 담겨 있다.

김포점의 이현주 선생님

2012년 3월, 부드러운 봄바람과 함께 입가에 미소를
가득 품은 분이 아름다운가게 김포점을 찾았다.
당시 김포점은 문 연 지 채 1년밖에 되지 않는
새싹 매장이었다. 담당 매니저도 없이 자원활동가
모두 주인이 되어 알콩달콩, 즐겁게 매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분들처럼 예쁘게
웃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아름다운가게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김포에 불고 있는 이 따듯한 나눔의 바람이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김포점 파이팅!

729시간
30분의
시간 나눔



718시간
30분이
가져온 기적

강동고덕점의 황숙영 선생님

제법 쌀쌀해진 날씨, 겨울옷을 꺼내던 10월의 어느 날.

황숙영 선생님은 입지 않은 옷을 기증하기 위해 아름다운가게 강동고덕점을 찾았다. 매장 문을 여는 순간, 문득 기증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음먹고 있었던 봉사를 실천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 작은 인연의 시작이 어느덧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강동고덕점 활동천사뿐만 아니라 전국 활동천사 대표직까지 맡고 있는 황 선생님. 그 힘찬 발걸음에 열렬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부산금정점 박영자 선생님

진정한 삶은 나눔에서 시작되고, 그 나눔의 힘이 세상을 밝게 만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직장생활 25년을 끝맺고 시작한 것이 바로 아름다운가게에서의 자원활동이었다. 사람과의 만남에 수줍음이 앞서던 박영자 선생님은 부산금정점에서의 자원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며 활기를 얻었다. 게다가 선생님이요 인해 부산금정점이 확 밝아졌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름다운가게 부산금정점에서 반짝이고 있을 박영자 선생님의 방긋한 웃음이 떠오른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800시간

마음이 따뜻
해지는 770
시간 30분

구미인동점 황미자 선생님

2011년 12월, 우연히 아름다운가게 구미인동점을 찾게 된 황미자 선생님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헌 물건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며, 또한 그 수익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이보다 더 매력적인 일은 없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진심으로 임해야 한다.’

황미자 선생님은 그런 분이였다. 작은 행동과 사소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다하신다.

그 모습에서 몽글한 감동이 전해진다.

삼선교점의 김기현 선생님

일주일에 네 시간은 물론, 매일 퇴근 후 들러 한두 시간씩 손을 보태는 활동천사님이 있다.

삼선교점의 김기현 선생님이 바로 그 주인공. 직장 일도 매우 바쁘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냐는 어리석은 물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인데 없는 시간도 쪼개어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현명한 대답을 꺼내신다.

김기현 선생님의 네 시간 활동은, 어쩌면 세상이 가장 따뜻해지는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1,722시간
30분의
헌신

반짝반짝
빛나는
1,012시간

대전중리점 홍기영 선생님

친구의 우연한 소개로 연을 맺은 아름다운가게와 어느덧 6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하고 있다. 밝고 활발한 홍기영 선생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매력이 더욱 도드라진다.

언제부터인가 대전중리점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이 홍기영 선생님의 팬이 되었다는데, 그 비결이 너무나 궁금했다.

“비결이랄 게 뭐 있나요.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겠죠.” 홍기영 선생님을 보며, 자원활동은 사람을 아끼는 진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두 번째 가치, 추억

아름다운가게 기증품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우리 아이의 첫 자전거, 외로울 때 힘이 되었던 책 등
물건의 크기나 모양이 모두 다른 것처럼
그 안에 담긴 이야기 역시,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지난 13년의 세월 동안 쌓인 수많은 이야기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있지만
'아름다운가게'라는 기억의 저장소에는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매일 아름다운가게로 앞으로 배달되는
소중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공개한다.



2001년 봄, 참여연대 자원봉사자 주부 이 모 씨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쓰던 많은 물건이 버려질 처지에 놓인 것을 안타까워했다. 가족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던 주방용품, 거실에 진열되어 있던 아기자기한 소품과 장식품, 아이의 성장과 함께 버려져야 할 처지에 놓인 4계절 의류 등 그대로 버리기에는 아까운 세간들이 많았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집집이 이민, 이사, 자녀의 성장 등으로 더는 사용하지 않지만, 충분히 재사용 가능한 물품들을 한데 모아 파는 장터를 열면 어떨까?’ 아름다운가게의 태동이 된 ‘알뜰시장’의 시작이었다.

첫 번째 알뜰시장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준비단이 조직되었다. 하지만 2주간의 물품 수집 기간 동안 항상 따라다니는 의문이 있었다. ‘과연 남이 쓰던 주방용품을 돈을 내고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이 장터에 모이게 하려면 물품의 구색을 갖추어야 하는 건 아닐까?’ ‘뭔가 해보겠다고 판을 벌여놓고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기대감 반 불안감 반으로 맞은 알뜰시장 오픈일. 건물 로비 5평 남짓한 곳에 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장에는 물건이 놓이자마자 무섭게 사람

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구매 고객은 건물 앞 인도를 오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열띤 현장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 나에게 쓸모가 없거나 잠들어 있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용한 쓰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처럼 재사용의 생활화를 꿈꾸는 새로운 ‘시민 참여형 운동’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게 된 알뜰시장은 기증과 나눔을 통해 재사용을 확립하고자 하는 아름다운가게의 태동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02년, 서울 안국동 아름다운가게 1호점 문을 열던 당시 모습.

이후 ‘물건의 기증이 곧 나눔’이라는 운영 철학 아래 재사용의 정착을 꿈꾸며 2002년 10월 ‘아름다운가게’라는 이름으로 첫 매장을 열었다. 창립 이후 아름다운가게 운영 철학에 공감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기증 행렬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개인은 기증과 자원봉사 참여를, 기업과 정부기관들은 임직원들과 자사 제품의 기증과 더불어 임직원의 자원봉사 기회를 희망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재사용과 나눔, 환경의 소중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듯 사회 각계각층의 기증 참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야의 나눔장터의 활성화에 불을 당겼고, 시민들은 자신이 사용하던 물품을 직접 장터로 가지고 나와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아름다운가게에 재사용품을 기증하는 ‘기증천사’는 연간 20여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매장 직접 방문 또는 택배 기증, 기업이 물품을 기증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판매 활동천사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 아름다운가게 수거 차량을 이용한 가가호호 방문 수거, 시민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직접 판매하는 나눔장터를 통한 오프라인 기증 및 기부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가게뿐만 아니라 각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재사용 매장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터로의 기증도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기증과 나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기증과 나눔 문화의 근원은 우리나라 역사 속 민중성과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전, 1960년대까지는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던 시절이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시절에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아름다운 속담이 있었고 누군가 쓰던 물건을 돌려쓰는 것은 일상이었다. 선배가 입었던 교복을 물려 입고, 오빠나 언니 형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받아 입고, 사촌이 쓰던 가방이나 학용품을 물려받았다. 농촌 마을에선 농기구를 서로 빌려주거나 빌려 썼고, 어느 가족이 도시로 이사를 떠나는 날에는 그 집에서 썼던 숯단지를 마을 이웃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을 쓴다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1970년대 이후 가속화된 산업화와 함께 마을공동체는 급격히 빠른 속도로 해체되었다. 아파트라는 가구의 형태와 빈부의 격차는 마을공동체 붕괴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웃과 격의 없이 무언가를 나누는 공동체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상대적 빈부 격차는 심해졌고, 이웃·형제간 다툼이 늘어났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사람들은 ‘나’보다 위대한 ‘우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해체된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생활 속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 영국의 옥스팜과 미국의 Salvation Army를 롤모델로 창립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름다운가게의 나눔과 순환운동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쑥쑥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 스스로 우리 주변을,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누군가와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기증’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15년, 열세 살이 된 아름다운가게는 지속적인 기증을 통해 물건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새로운 미래 꿈을 꾸고 있다. 그것은 무너진 지역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다.

릴라씨의 추억

홍보팀



첫째 딸이 나들이 갈 때마다 스스로 챙겨 입었던 티셔츠, 사진발 잘 받는다면서 엄마가 자주 입혔던 우리 아이 드레스, 아름다운가게로 기증되는 물품에는 이렇게 제각각 추억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심한 훼손, 오염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들이 있는데, 아름다운가게의 재활용 디자인 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는 이러한 옷들을 분해해서 새로운 캐릭터 인형 ‘릴라씨’를 만든다.

릴라씨는 소재 확보부터, 제작,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과정에 추억과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다. 시중에 많은 캐릭터 인형들은 마케팅 용도의 허구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릴라씨는 탄생 배경부터 성격이 다르다.



작은 릴라씨를 안아주고 있는 큰 릴라



헌 옷에 쌓인 릴라씨

세상에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제품인 릴라씨의 주 소재는 재판매가 어려워 가장 많이 버려지는 물품 중 하나인 아동 티셔츠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장 많이 받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어린이 티셔츠지만, 엄마들은 신기하게도 그 티셔츠가 누구에게 받은 선물이고 언제 입혔는지를 대부분 기억한다. 그 옷을 기증하는 순간에는 티셔츠를 입었을 때의 아이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렸을 것이다. 릴라씨는 그런 추억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모아서 만든 제품이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보들보들한 촉감의 릴라씨에겐 이러한 탄생 배경이 있다.

* 릴라씨 탄생 과정



하나의 릴라씨가 탄생하는 배경 안에는 수많은 공정이 존재한다. 재판매가 어려운 제품을 골라내는 분류 작업, 세탁, 디자인, 생산 등 총 여섯 가지 과정을 거친 후 매장 진열대에 놓이게 된다. 모든 작업은 자활센터 근로자, 아름다운가게 디자이너, 매니저 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루어지며, 그렇게 완성된 릴라씨는 하나당 15,000원에 판매된다.

재단과 봉제, 숨을 넣는 작업은 구로에 위치한 '여우숨씨'라는 봉제 공동체에서 이뤄진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릴라씨의 얼굴만 봐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난 이상하게도 릴라씨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일거리를 줘서 그럴까요?(웃음)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릴라씨가 좋아요. 오죽하면 휴대전화 메인 화면으로 저장까지 했을까요.”

- 봉제 공동체 '여우숨씨' 근로자 이야기 중



릴라씨와 함께 찍은 사진

* '여우숨씨'는 어떤 곳?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봉제 공동체 '여우숨씨'는 제품 작업을 통해 우리 주변 소외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 지원 사업이다. 이곳의 근로자들은 '릴라씨'의 재료인 헌 옷을 재단하고 숨을 넣고,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맡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릴라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꿈꾼다.

이렇게 만들어진 릴라씨는 아름다운가게의 전국매장,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된다. 어떤 캐릭터보다 진솔한 이야기가 많은 릴라씨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자신의 사연을 전달하거나 누군가의 새로운 추억이 된다. 그리고 그 추억들 중에는 기증한 아이 티셔츠와 똑같은 옷을 입은 릴라씨를 우연히 만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을 바꿀 이야기를 심고

순환지원팀 류화선 간사



기증천사님들의 추억, 이야기를 '아름다운가게'라는 저장소에 옮겨 담는 사람들. 아름다운가게 수거 간사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연애 시절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스카프, 첫 면접 때 입었던 정장, 어린 시절 가장 아꼈던 손때 묻은 인형 등 여러 가지 기증품에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모양도 사연도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스며있다는 것. 언제 떠올려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상에 하나뿐인 '콩순이 인형'

기증천사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내리자마자 조그만 여자 아이가 “깽, 왔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엄마 뒤로 숨는다. 해맑은 표정으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있는 아이에게 “몇 살이니? 세 살?” 하고 묻자, 꼬마는 부끄러운 듯 손가락 네 개를 짚 내밀어 보인다. “오셨어요? 다연이가 직접 고른 물건들 기증하려고요. 그중에서도 ‘콩순이 인형’은 아주 어릴 때부터 늘 업고 다니던 건데, 다른 동생한테 선물하겠다고 하네요.” 다연이 어머니가 꺼내놓은 작은 박스 안에는 조그만 수첩, 지우개 달린 연필, 커다란 주사위 쿠션, 머리핀 등 한눈에 봐도 어린아이가 꽤 오랜 시간 사용하던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우리 다연이 얼굴만 예쁘게 아니구나? 아저씨가 다른 동생한테 잘 전달해 줄게! 고마워!” 다연이는 엄마 뒤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한참 동안 손을 흔들며 주었다. 다연이의 손때가 묻은 콩순이 인형은 또 다른 꼬마 아가씨의 추억 너머에 자리 잡아 나가고 있을 것이다.

치아라, 아끼면 똥 된다 아이가!

유난히 더웠던 어느 여름날, 방배동의 한 대형 주택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에 보인 건 옷가지들이 빼곡히 들어찬 100L 쓰레기봉투 세 개. 얇은 여름옷들이 차곡차곡, 정갈하게 담겨 있다. 봉투를 밖으로 옮기려는 순간, 기증 천사님은 아직 물건이 남았다며 급히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온 기증천사님의 손에 들린 건 청바지와 티셔츠 몇 장. 미처 담지 못한 기증품을 더 꺼내 오신 것이다. 기증천사님 뒤로 이제 갓 스무 살 쯤으로 보이는 따님은 못내 아쉬운 표정이다. “엄마! 나 그거 사서 딱 한 번밖에 안 입은 옷이다 아이가.” “야! 가지 내야, 산지가 언제고. 치아라! 아끼면 똥 된다 아이가.” 두 분의 모녀 기증천사님은 그 뒤로도 여러 번 기증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로 연락을 주셨다. 두 분을 보며 작은 깨달음 하나를 얻은 게 있다. 나 역시 언젠가 ‘똥’이 될지도 모르는 것들을 마냥 안고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옥신각신, 즐거운 모녀 기증천사님을 만나고 올 때마다 퇴근 후, 우리 집엔 기증할만한 물건이 없는지 하나둘 찾아보곤 한다. 고맙습니다, 기증천사님!



‘태희혜교지현이’보다 아름다운 기증천사님!

아름다운가게 순환지원팀 간사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기증천사님의 댁에 방문했던 기억이 지금 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송파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장서희’ 기증천사님 댁. “장서희? 이상형이었던 배우 장서희를 실제로 보게 되는구나!” 초인종을 누르기 전, 옷매무새를 다시 한 번 가다듬는다.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문이 열리고, 기증천사님이 나오시는데! 내 눈앞엔 50대 어머니 한 분이 서 계신다.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피식 웃음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장서희 기증천사님! 아름다운가게입니다.” 그 후에도 시트콤 제목처럼, 아름다운가게 기증천사님 버전의 ‘태희혜교지현이’를 종종 만나 뵈곤 한다. 그런데 이제 내 눈엔 그분들이 진짜 텔런트보다 훨씬 예쁘고 아름답게 보인다. 또한 그중에는 동명이인이 아닌, 실제 유명 연예인이 눈앞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유명세를 뒤로하고 좋은 마음만으로 기증에 동참해주고 계신 분들이기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만 대도 알만한 배우, 가수, 아나운서 등 수많은 셀럽이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하고 있다. 실제로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동명이인인 줄로만 알고 있던 분이 기증품을 전해주기도 했다. 참고로 그분은 얼마 뒤 TV 프로그램에서 복면을 쓰고 열창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제는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아름다운가게!”

서울 동작구 한 주택가 1층, 입구를 못 찾아 서성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내 손을 잡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라며 고맙다는 말만 연신 하신다. “무슨 말씀요. 기증을 해주시니, 저희가 감사한 걸요.” “한 십 년 전에 많이 캄캄하고 막막한 시절이 있었어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그런데 아름다운가게에서 쌀이랑 생필품도 보내주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형편이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해졌어요.” 내 손을 한참을 꼭 잡은 상태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신다. 아름다운가게에서 매년 설 연휴를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변 이웃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보따리’ 사업 진행 시 혜택을 받은 분이었다. 그 작은 도움을 잊지 않고 이제 반대로 본인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이다. 고맙다는 인사와 기증품 가지곤 마음을 표현하기가 부족하다며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신다. 아무리 사양을 해도 손에 꼭 쥐어주고 마는 기증천사님. “사양하지 말아요.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갚아야지.” “네, 꼭 필요한데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차량에 다시 올라타는 순간까지 배웅을 나오신다. 차가 출발한 이후에도 저 멀리서 손을 흔들고 계시는 모습에 가슴 저 깊숙이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온다. 이렇듯이, 많은 기증천사님들과 아름다운가게는 서로 힘들 때 어깨도 빌려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가고 있다.

나의 비타민, 러브레터 ♡♡

순환지원팀

기증천사님들의 기증품을 받으러 가는 업무는 날씨를 가리지 않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멈추지 않는다.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한숨이 새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기증천사님의 애정이 듬뿍 담긴 메모를 발견하는 순간, 그간 힘들었던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진다.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비타민과 다름없는 존재, 러브레터! 아름다운가게 초창기 시절부터 2015년까지, 아름다운가게 수거 간사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러브레터를 전격 공개한다.

아름다운가게의 활동에 멀리서나마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름다운 마음의
씨앗이 널리 퍼져서 어디서나 그 향기를
맡게 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제가 만든 그림영상 포스터 15통을
보냅니다. 가게의 한 주석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아름다운 가게의 발전을 믿며.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 기사님께
<오미자 엑기스> 인사하.
물에 타서 시원하게
드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사님!

- 조재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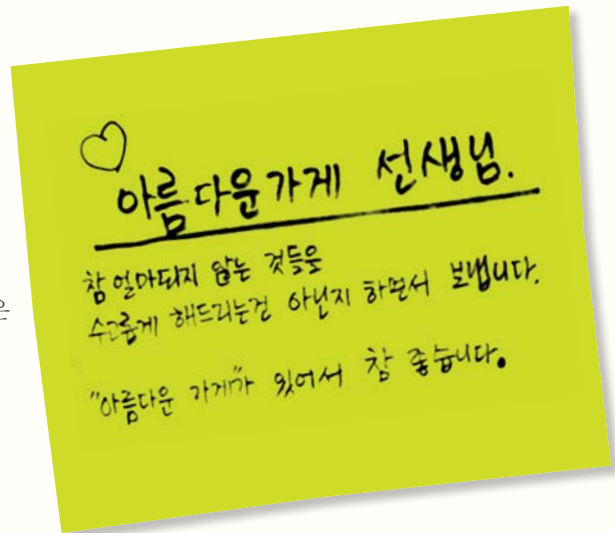
무더운 여름날이면 시원하고 청량한 음료,
추운 겨울날이면 따뜻한 차 한 잔. 아름다운가게
수거 간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쩔 그렇게 목마를 때마다 잘 알고 건네주시는지.
음료를 손에 받아든 순간, 속으로 “유레카”를 외치곤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오미자 원액’을 받아 들고 만다.
그것도 하필 열대야 같은 한여름 날. 사랑하는 여자 친구
대하듯 옆자리에 잘 모시고 참고 인내한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시원한 얼음물에 타서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 인내 후 맛본 오미자의 꿀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카!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 강경수 간사

아름다운가게와 기증천사님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하는 관계다. 가끔은 진짜 러브레터를 받은
것처럼 심장이 쿵! 하게 만드는 쪽지도 있다. 다행히
수신인이 우리가(간사) 아니고 아름다운가게이다. 휴.
떨리는 손으로 풀어보면 아름다운 필체 안에
아름다운 마음이 엿보인다.
아, 실로 아름다운 세상이다.



작은 정성이지만 부디 필요한 곳에
손모양에 쓰여시길 바라며 보냅니다.
무한해도 티 갖는 수 바라고.
성심 보내드립니다.

아래와 티 따뜻한 세상에서
자위 아미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조금 더 행복한,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 최성열 간사

기증천사님, 즉 시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가게에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써달라는 것. 기증품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꼭꼭
스며있다. 더불어 보내주시는 러브레터 안에도 담겨있다.
한편으론 어깨가 무겁지만 가장 먼저 기증천사님들 만나는
간사로서 다시 한 번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파이팅!

2015 아름다운가게 기증 사연

홍보팀 강미선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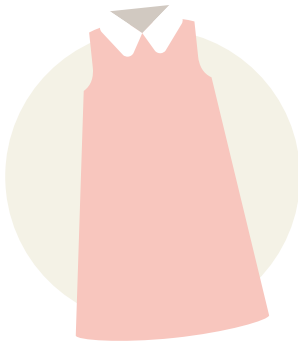


01 첫 면접 때 입었던 정장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첫 면접 날. 그때의 설렘, 긴장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경험이었죠. 저에게도 첫 면접 날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꼭 쓰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합니다.

02 쌓아두기만 했던 스웨터

얼마 전 '333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어 동참하고자 합니다. 100개의 물건만으로 생활하기 위해 가진 것을 줄이려 합니다. 제 물건 중 100가지를 고르려 하니 스웨터를 50벌이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질이 아닌, 삶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쌓아두기만 했던 제 스웨터들을 기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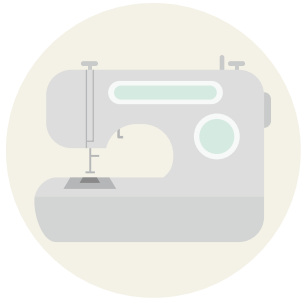
03 나를 빛나게 해주었던 깜찍한 원피스

지금의 신랑과 연애 시절 입었던 원피스를 기증합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어울리지 않지만, 깜찍한 원피스를 입고 데이트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참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어느덧 가족이 된 우리! 저를 빛나게 해준 이 원피스가 이제는 다른 곳에서 빛날 수 있도록 기증합니다.

04 둘째의 우주복

어여쁜 딸아이 엄마입니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딸아이에게 동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예쁜 아가 옷을 구매해놓고 꽤 오래 기다렸지만 둘째가 생기지 않네요. 올해로 7살이 된 딸아이와 함께 결정하여 준비해두었던 아기 옷을 기증합니다. 비록 우리 집에서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다른 집 아이가 예쁘게 입어줬으면 좋겠네요.





05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미싱기

어린 시절 조곤 가정으로 넉넉지 않게 자랐습니다. 옷을 사지 못해 구멍 뚫린 옷도 할머니께서 미싱기로 키워주곤 하셨죠. 그때 팔꿈치가 덧대어진 옷이 창피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키워주신 할머니께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얼마 전 아름다운가게에서 조곤 가정도 지원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할머니의 미싱기를 기증합니다.

06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책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귀하던지요. 그러고 보니 이웃의 소외된 아이들도 함께 꿈을 키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실천하는 작은 시작으로 우리 아이가 소중히 보았던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기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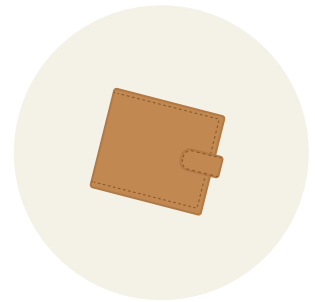


07 결혼 전 신던 고가의 구두들

결혼하면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며 제 인생에 2막을 준비 중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신었던 고가의 구두들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네요.

08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지갑

1년간 만나던 사람과의 추억이 깃든 지갑을 기증합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지갑인데 헤어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가 없어 나눔을 실천합니다. 소중히 다루던 것이라 거의 새것과 같아 사용엔 무리가 없습니다. '버림'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09 우리 아이의 세발자전거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 타고 놀던 자전거를 기증합니다. 이제 많이 커서 필요 없게 되었지만 그 자전거를 보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타던 모습이 그려져 그냥 버릴 수 없네요. 좋은 자전거는 아니지만 깨끗이 잘 사용했답니다. 필요한 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가치, 친구

“

좋은 친구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존재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가게는 좋은 친구들이 참 많다.

기쁜 일에 같이 즐거워하며
힘든 일에 어깨를 빌려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아름다운가게는 오늘도 용기를 낼 수 있다.

언제 봐도 반갑고, 미소 짓게 되는
아름다운가게의 친구들을 소개한다.

”



아름다운가게가 꿈꾸는 파트너, 뷰티풀펠로우

사회적기업센터 **윤여정** 간사

뷰티풀펠로우 5기로는 박찬재 두손컴퍼니 대표, 유동주 케이오에이 대표, 이영희 토닥토닥협동조합 대표, 이준서 에코준컴퍼니 대표, 정지연 에이컴퍼니 대표가 선발됐다. 올해 뷰티풀펠로우 선발과정에는 총 108명이 지원했으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67일간 5차의 심사를 거쳤다.

아름다운가게의 혁신 파트너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일상에서 버려지는 물건들의 쓰임을 높이고, 수익금으로 국내외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재사용, 나눔 문화에 혁신을 가져오며 현재 13년 동안 지속가능 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가게 혼자 할 수 없는 역할들도 많았다.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함께 실현해줄 친구가 필요했다. 뷰티폴펠로우 사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람이 만들어 내는 변화의 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이다

-빌드레이튼(아쇼카재단 창립자)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 해 평균 창업하는 사회적기업 수가 수백 개에 육박하지만, 대부분 창업 시도 단계에서 그치고 만다. 이에 아름다운가게는 '사업은 실패할 수 있어도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경험과 해외 '아쇼카재단', 'एकोइंग्रिन', '슈왓재단' 등의 펠로우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사회혁신기업가를 지원하게 되었다. 단위 사업의 성과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변화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친구의 또 다른 이름, ‘신뢰’

아름다운가게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첫 번째 마중물은
‘신뢰자산’이다

– 이경숙 (‘산타와 그 적들’ 저자)

고학력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유정호 펠로우(소셜코어 대표)는 회사 소개 및 사업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가게 뷰티풀펠로우라는 것을 꼭 알리고 있다. 그는 “아름다운가게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상대방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사람들이 행복한 광고를 꿈꾸는 박정화 펠로우(인디씨에프 대표)는 ‘동네 슈퍼에서도 돈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획으로 지난 6월 CF 제작 전문 앱 ‘후릴(hooreel)’을 출시했다. 이후 시범적으로 광고를 촬영하고 홍보하는 것을 아름다운가게 공익상품과 함께했다. 박정화 펠로우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사업 성과를 쌓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실질적인 앱의 시스템 오류 등을 최소화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아름다운가게 또한 박정화 펠로우와 함께 13개의 공익상품 광고 영상 콘텐츠를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유정호 펠로우 (소셜코어 대표)



박정화 펠로우 (인디씨에프 대표)

시간에 대한 격려와 지지

뷰티풀펠로우로 선발되면 3년 동안 매달 활동비 150만원, 국내외 연수,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는다. 물론 그 이후에도 평생 뷰티풀펠로우 지위가 유지된다. 뷰티풀펠로우의 까다로운 선발과정을 통해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확인하면, 사업 과정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실패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자율’이라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150만 원이



라는 활동비 지급에 있어 일체의 영수 증빙을 받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책임감이 더 막중했다고 펠로우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박정이 펠로우(오방놀이터 대표)는 “사회적으로 응원받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성찰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 마음 속의 CCTV’같은 존재였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먼저 살림으로써 당사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름다운가게의 역할이다.



유호근 펠로우(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는 “뷰티풀펠로우는 한마디로 비밀 언덕이다. 아름다운가게라는 조직의 펠로우십 자체가 참 든든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정서적 지지가 함께 했다”고 한다.

새로운 사회 변화를 상상하다

아름다운가게와 뷰티풀펠로우는 분기별 한 번씩 자리를 함께 하며,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8월에 진행된 분기보고회에서 아름다운가게는 선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을 펠로우들과 함께 했다. 단위사업의 기획-진행-평가를 바탕으로 가격 책정, 매장 운영 매뉴얼 등을 하게 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시행착오와 경험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가게는 뷰티풀펠로우라는 친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 변화를 꿈꾼다. ‘더불어 꾸는 꿈’, ‘실패’, ‘격려와 지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처럼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으로의 상상과 실천을 통해 만들어 가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두 남자와의 놀라운 인연

후원개발팀 김영연 간사

“스무 살, 첫 서울살이를 시작하며 아름다운가게를 알게 되었어요.

저렴한 가격에 세간을 구입하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죠.”

이젠 누가 봐도 서울 남자 냄새가 물씬 풍기는 두 남자, 놀라운가게의 박승제·이우형 사장님의 이야기다. 요즘은 누군가 기증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직접 기증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기증뿐만 아니라 놀라운가게를 통해 매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으며 제3세계 기후난민도 돕고 있다. 아름다운가게와 3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두 남자의 놀라운 가게를 소개한다.



 놀라운가게의 박승제·이우형 사장

서울살이 몇했가요 서울살이 몇했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마음에 담고 살아가나요

서울살이 십 년 세 번째 적금통장 해지
어디 어디 살아보셨나요
봉천동 석관동 미아리 옥수동
다니고 다니다 깨진 건 적금통장
그리고 부부 금실

- 뮤지컬 '빨래' 수록곡 中



놀라운가게란?

매월 수익의 일부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후원하는 아름다운가게의 소중한 나눔 파트너이다.
현재 전국 100여 개가 넘는 놀라운가게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운가게 145호 청춘노가리

청춘노가리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찾는 곳, 생맥주가 가장 맛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최고의 식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무엇보다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두 사람의 경영철학은 가게를 방문하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다. 두 사람이 청춘노가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문화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폐쇄적인 음주문화를 탈피해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가격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할 것. 그러다 보니 청춘노가리의 단골손님은 이른바 유모차 부대로 불리는 젊은 주부들이다. 청춘노가리는 놀라운가게 뿐만 아니라 500cc 한잔 당 100원이 기부되는 방식의 '100원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들만의 재미있는 나눔 실천도 이어가고 있다.

놀라운가게 173호 제주부르스

대한민국 유일한 제주 음식 전문점이 대전에 있다?!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제주도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제주부르스'가 바로 그곳. 2009년,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제주도만의 매력에 푹 빠진 박승제, 이우형 사장님은 다른 지역에도 그때의 감성을 고스란히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가지 않고도 제주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 밥이라도 든든히 드세요', 제주부르스는 인심이 좋다. 공깃밥, 곰뻥이 감귤주스, 플랫브레드는 돈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비오는 날 우산까지 대여해주니, 꼭 한 번 가볼 만한 곳임이 틀림없다.



그동안 나눔에 대해 막연하고 어렵게만 생각해왔다는 박승제, 이우형 사장님.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고정관념은 변화의 순간을 맞았다. 언젠가 성공하면 기부하겠다고 마음먹었던 목표가 '놀라운가게'를 통해 조정된 것. 아주 약소한 금액이라도 지금 당장 동참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씨앗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놀라운가게 현판을 달고 가게를 운영하니 더 정직하게 손님을 맞이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겨요. 놀라운가게가 삶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정진시키는 체찍질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아름다운가게와 두 남자와의 인연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시와 아름다운가게

시와 아름다운가게, 즉 아름다운가게와 시와는
지난 4월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2015년 4월 25일,
대규모 강진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네팔 국민들을 돕기 위한 ‘Concert for Nepal’가
인연의 시작이었다.

후원개발팀 김영연 간사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방법을 알려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인연을 앞으로도 꼭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01. 본인을 직접 소개해주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시와’라고 해요.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정규음반 3장을 발매했어요. ‘시와’라는 이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와는 이집트 사막 이
름이에요. 오아시스가 있어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
죠. 사실 ‘시와’라는 이름의 문화공간을 통해 그 이름을 알
게 되었어요. 언젠가 꼭 노래하고 싶은 공간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문을 닫았어요. 그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시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활동하고 보니 참 좋네요. 어
감도 좋고 세상 모든 이름과 연결이 돼요. 시와 그림, 시와
사랑, 시와 나비, 시와 아름다운가게... 참 좋죠?

*2015년 6월 6일 홍대에 위치한
상상마당에서 열린 ‘Concert for Nepal’
현장. 전기뱀장어, 바이바이배드맨,
시와 등 여러 뮤지션들이 네팔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공연을 개최했다.
공연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네팔 피해 지역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02. ‘시와’만의 특별함?

꾸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꾸준히 노래하면서, 제
노래를 그리워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제 목소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마음에 보답하는 것은 꾸준히 노래하는 것밖
에 없다고 생각해요.

03. 싱어송라이터로 언제부터 활동하셨나요?

원래 제 직업은 특수교사였어요. 지적장애 및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일이죠. 그 당시, 아이들에게 인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음악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음악치료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음악치료를 통해 음악을 접했고 자연스레 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욕심. 그렇게 4년 정도 본래 직업과 음악을 병행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중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가?” 정답은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직업을 내려놓고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택했어요.

04. 아름다운가게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었나요?

아름다운가게 업사이클링 제품 ‘에코파티메아리’가 첫 인연이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에코파티메아리가 주최하는 벼룩시장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고, 기념으로 가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엔 업사이클링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자투리 가죽에 새로운 디자인을 또 다른 가방이나 지갑을 만든다는 것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름다운가게가 지향하는 문화와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아, 아름다운가게 간사님들 몇 분과도 깊은 인연이 있어요. 지금은 아름다운가게 제주본부에서 활동하시는 박진우 간사님을 통해 부산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주서신점 유지혜 간사와는 듀엣으로 공연도 했어요. 이 정도면 인연이 꽤 깊은 편이죠?

05.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네팔 지진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콘서트에 참여해주셨어요.

언제부터가 사회에 득이 되는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Concert for Nepal 역시 그 일환이었어요. 전기뱀장어(록밴드)의 적극적인 추천도 있었어요. 사실 네팔의 소식은 뉴스나 SNS를 통해 접하긴 했지만 직접 방문하여



* Concert for Nep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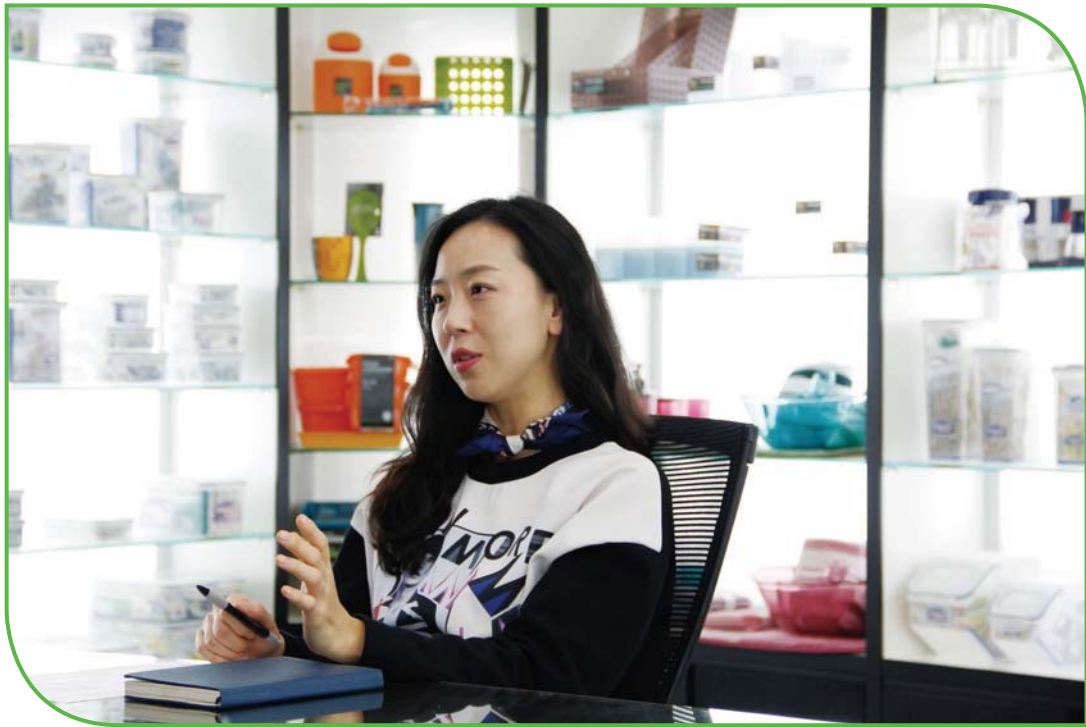
돕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멀리서나마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기회를 주신 전기뱀장어와 아름다운가게 모두 고맙습니다.

06. 앞으로의 활동 계획

경북 청송 산간지역 마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 경북 청송 산간지역에 있는 폐교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 사람들, 제 노래에 귀 기울여주고 기뻐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참 따뜻했던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면서 꾸준히 노래하고 싶어요. 경북 청송 산간지역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관객과 교감하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순간이 언젠가 또 오겠죠?

07. 아름다운가게에 한마디!

아름다운가게는 그냥 좋아요. 생각해보니 이유가 없어요. 득템했을 때 기분은 정말 최고예요. (웃음) 특히 매장에 들어서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분들은 존재만으로도 참 편안해요. 매장 분위기가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면 왠지 불편할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 편안함과 익숙함을 주는 곳! 그곳이 아름다운가게 아닐까요? 아름다운가게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 가면 좋겠어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곳.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라서 더 즐거운 락앤락*아름다운가게

사회공헌팀 황선웅 간사

좋은 친구는 서로 닮는다고 했던가. 락앤락과 아름다운가게는 비슷한 점이 참 많다.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을 근간으로 하는 락앤락의 경영이념이, 아름다운가게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르겠다. 어느덧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인연 속에서 이젠 서로의 얼굴만 보아도 저절로 미소 짓게 된다. 함께하는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락앤락과의 만남, 그날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락앤락 홍보팀 김민정 과장

Q. 아름다운가게와의 첫 인연을 설명해준다면?

2012년, 첫 바자회 당시 락앤락은 CSR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고 있었어요. 예산 때문에 새롭게 뭔가 시작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죠. 그러던 중, 아름다운가게를 만나게 됐어요.



락앤락과 아름다운가게는 협약을 맺고 매년 정기적으로 '아름다운하루(바자회)'를 열고 있다. 락앤락은 상품의 질은 문제가 없지만 패키지만 손상된 것들을 기증해, 판매된 수익금으로 우리 주변의 소외이웃들을 돕고 있다.

Q. 여러 단체 중, 아름다운가게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물류 및 판매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은 행사라고 할지라도, 직접 준비하고 꾸리다 보면 한없이 손이 많이 가기 마련인데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하면 그런 걱정은 접어둬도 돼요. 수거, 가격 책정, 공간 마련, 인력 배치 등 바자회에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알아서 척척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아름다운가게가 지향하는 가치나 미션이 락앤락과 비슷한 지점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끌린 것도 있어요.

Q.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아름다운가게와 비슷한지?

락앤락은 '환경과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창립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특히 주요 제품들이 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기류이다 보니, 소재 선정부터 '환경'이라는 주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가게가 쓰임이 다한 물건을 선순환해 환경보호를 하는 점에서 락앤락의 미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대학생 서포터즈(그린메이트)

Q. 락앤락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환경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던데.

대학생 서포터즈(그린메이트), 락앤락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환경캠페인 및 CSR 활동,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 사용을 권장하자는 취지의 컵 캠페인 등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 락앤락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캠페인



텀블러데이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컵보다는 텀블러(개인 컵)를 사용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대학생 서포터즈 ‘그린메이트’와 함께 매년 대학가 내 일회용 컵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컵 캠페인

컵 캠페인 역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입한 컵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과 환경보존을 위해 사용한다.

Q. 락앤락 사내에서 운영하는 환경캠페인도 있다던데.

올해 초부터 ‘텀블러데이’ 캠페인을 사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비용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접대용 종이컵 50개를 제외하곤 모두 머그잔으로 교체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요. 홍보팀에서 주도적으로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는 POP, 거치대를 만들고 공용 식기건조대까지 설치했어요. 노력 끝에, 이제는 거의 전 직원이 일회용 종이컵이 아닌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Q. ‘아름다운하루’는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데, 소감은?

업무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론 힘들어도, 참여하고 나면 뿌듯해요. 행사 끝나고 쇼핑하는 재미도 있고요. 행사 중에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는데, 누가 사가지 않을까 계속 노심초사하게 되는 건 힘들지만요. 저는 주로 도자기나 부모님 드릴 선물을 사요. 그런데 마음에 담아둔 물건은 행사 끝나고 보면 결국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웃음)

Q. 락앤락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는 구매경쟁이 치열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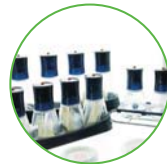
직접 현장에 참여하다 보면, 소비자의 의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피부로 느껴요. 과거에는 누군가 사용하던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 꺼려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면, 새 물건이 아니더라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현 물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생겨난 건 아름다운가게 덕분 아닐까요.

* 아름다운하루



아름다운하루 판매 베스트 상품

이지락, 양념통 등 바자회에 등장하는 순간 불티나게 팔리는 락앤락의 상품들이다. 바자회에선 시중가보다 약 5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Q. 기업의 CSR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에는 연탄 나르기, 아이 돌보기 등 일회성 이벤트 중심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물론 그러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CSR이 강조되고 있다는 게 다를 뿐이죠. 요즘 기업 CSR의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 아닐까 싶어요. 사회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헌 활동을 찾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익단체와의 관계에도 변화점이 생긴 것 같아요. 마냥 착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너로 성장해나가길 바라는 거죠.

Q. 마지막으로, 락앤락에게 아름다운가게란?

'효자손'과 같은 존재예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이 딱 떠올라요.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아이디어까지 제시해주니, 더할 나위 없죠. 훌륭한 파트너를 만나서 참 좋아요. 앞으로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었으면 해요.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착한 밥상 이야기

그린사업국 박봉우리 국장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먹는다. 일 년을 따져보면 숫자 1,000(천)을 훌쩍 넘는다. 천 번을 넘게 마주하는 밥상에서,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고 마실까 고민한다. 이 행복한 고민의 무게를 덜어줄 레시피를 소개한다. 게다가 이 레시피는 요리를 해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리 원재료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배부를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자랑한다. 먹을수록 착해지는 신기한 밥상,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알고 나면 당신도 분명 반하게 될 것이다.

2015년 '요리'라는 키워드로 세상을 뜨겁게 달군 김풍 작가, 그는 요즘 착한 밥상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지난 6월 GS샵&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한 윤리적 소비 캠페인 홍보영상 촬영 시, 공익상품을 주제로 사용해보고 이후 신세계를 경험한 것.



“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품질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취나물, 표고버섯을 물에
불릴 때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더라고요.
깔끔하게 손질도 잘 되고, 홍보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다고 봐요. ”

- 김풍 작가 인터뷰 중

GS샵과 함께한 '윤리적 소비 캠페인'은 공익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기획했다. 이 캠페인의 모델로 나선 김풍 작가는 공익상품을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공익상품이란 사회적기업, 친환경단체, 장애인재활단체 등 착한 생산자가 만든 상품, 소비를 통해 사회에 이익이 되는 상품을 뜻한다. 아름다운가게는 공익상품을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www.beautifulmarket.org)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판로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기업, 단체들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게 된다.



“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내는 게
‘일배움터’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가게는 너무나 감사한 존재이죠. 저희
시설에서 만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니깐요. ”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 최영열 원장

“ 일하는 거요? 월급도 받고 저축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영화도 보고 화장품도 사고요. ”

- 일배움터 근로장애인 김수아씨

공익상품을 활용한 김풍 작가의 레시피!



김풍 작가의 손에서 탄생한 음식들. 모두 공익상품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재료를 구입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게끔 요리 레시피까지 손수 개발했다.

레시피 보기 ➔

표고에 취한 파스타



이 요리에 사용된 맛있고 향긋한 표고버섯은 청정지역 제주에서 장애인들이 즐겁게 일하는 일터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에서 만든다. 지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든든한 삶의 현장이다.



조리 재료

취나물, 표고버섯, 다진 마늘(8쪽), 스파게티 면 2인분, 올리브오일, 페퍼론치노 2~3개, 간장, 다진 파슬리, 소금, 후추, 파마산 치즈 적당량

조리 방법

1. 말린 취나물과 말린 표고버섯을 각각 물에 불린다
2. 불린 표고버섯은 물기를 짜낸다 (이때 표고 물은 버리지 않는다)
3. 취나물을 삶아 찬물에 담근 후 물기를 짜낸다 (이때 취나물 삶은 물은 버리지 않는다)
4.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팔팔 끓으면 스파게티 면을 넣고 삶는다
5. 달군 프라이팬에 마늘과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볶는다
6. 페퍼론치노를 넣고 취나물, 표고버섯과 함께 볶는다
7. 소금과 후추를 뿌려 볶다가 표고버섯 불린 물과 간장,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고 함께 볶는다
8. 다 익으면 접시에 파스타를 담고 파마산 치즈로 간을 맞춘다
9. 파슬리 가루를 뿌려 완성한다

취볶는 그녀, 샌디!



샌드위치와 취나물의 맛있는 만남. 이 취나물은 지역 내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담제주'에서 만든다. 농어민에게 안정적 가격을 보장하는 지역상생사업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조리 재료

취나물, 바게트 1개, 양파 1/2개, 고다치즈, 레터스, 슬라이스 햄, 다진 마늘, 올리브오일, 마요네즈

조리 방법

1. 말린 취나물에 물을 붓고 불린다
2. 불린 취나물을 삶은 뒤, 찬물로 행궤 물기를 꼭 짠다
3. 달군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른 후 다진 마늘을 넣고 볶는다
4. 삶은 취나물과 채 썬 양파를 넣고 소금, 후추를 뿌려가며 볶는다
5. 반으로 자른 바게트에 마요네즈를 펴 바른다
6. 레터스, 치즈, 햄을 얹고 볶은 취나물, 양파를 얹는다
7. 빵을 덮고 먹기 좋게 썰어 완성한다

풍이와 미자가 만났을 때



새콤달콤한 오미자청은, 다운중후군을 중심으로 한 지적장애인 대상의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에서 만든다. 직업재활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에 힘쓰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



조리 재료

오미자청 적당량, 레몬 1/2개, 얼음, 럼, 냉동 라즈베리, 탄산수 2병, 민트

조리 방법

1. 레몬을 슬라이스한다
2. 유리 잔에 얼음을 담고 오미자청을 붓는다
3. 레몬과 냉동 라즈베리, 민트를 넣는다
4. 럼을 붓는다 (무알콜을 원하는 경우 넣지 않는다)
5. 탄산수를 붓고 저어서 완성한다

공익상품으로 만든
김풍의 레시피



가게 이야기





늘 고맙습니다, 활동천사님!

자원활동센터 양유라 간사

2015년 8월 23일~24일, 파가운 햇살이 기울어가는 늦여름, 아주 특별한 행사가 강원도 횡성에서 1박 2일간 진행되었다. ‘Thanks to 활동천사! 함께 그린 꿈, 아름다운가게’ 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1,050여 명의 아름다운가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아름다운가게 간사, 활동천사 등 아름다운가게 식구라면 빠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활동천사캠프’이다. 3년 중 딱 하루, 전국 120여 매장 및 본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모두에게 큰 선물과도 같은 날이다.

활동천사캠프는 2002년 10월 17일 아름다운가게 창립 후, 그다음 해인 2003년 ‘한여름의 아름다운 왈츠’라는 슬로건으로 막을 올렸다. 2004년(2회), 2005년(3회)을 거쳐 2009년부터 3년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가 어느덧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아름다운가게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은 활동천사캠프는 전국의 활동천사들이 캠프 참여를 통해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 몇 달의 시간을 거쳐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다.



캠프의 시작은 레드카펫 이벤트였다. ‘자원활동가가 바로 아름다운가게의 연예인!’이란 콘셉트로, 전국에서 속속 도착하는 천사님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할 수 있게끔 현장을 꾸몄다. 입장하는 천사님들을 향해 달려가는 리포터, 파파라치, 기자 등은 아름다운가게 간사들의 역할. 당당하게 레드카펫 위킹을 선보인 천사님들의 얼굴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몸으로 부대끼며 팀별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명랑운동회, 캠프의 하이라이트였던 장기 자랑 시간, 나눔 아카데미, 다양한 이벤트 부스 등 2015 활동천사캠프는 1박 2일에 걸쳐 알차게 꾸며졌다.

짧지만 행복했던 2015 활동천사캠프.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아름다운가게 활동천사, 간사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칠 세라 한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온 간사들과 그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1박 2일간 즐겁게 참여해준 활동천사님들이 함께한 이번 캠프는 우리 마음속, 또 하나의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01

아름다운가게 소식



01. 독섬 아름다운나눔장터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독섬 아름다운나눔장터’와 ‘광화문 희망나눔장터’가 열렸습니다. 또한 성북여울림장터도 올해 처음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장터는 버려지는 물건의 재사용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곳입니다. 또한 참가비 전액은 소외아동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02

02. 네팔 지진 피해 긴급구호 지원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4월 발생한 네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3차에 걸쳐 긴급구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1차 약 2만 달러, 2차 107,300달러, 3차에는 6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각 지역에 필요한 긴급 물품,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임시 학교 건립 기금 지원 등 그들의 슬픔을 나누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03

03. 23차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올해 아름다운 희망나누기에서는 약 18억 원의 수익을 소외이웃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나눔액은 전국의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단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사회복지 단체들의 프로그램 사업, 기능보강 사업, 냉난방비로 지원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04

04. 병아리떼 쫄쫄쫄

지난 5월 2일~5일, 자원의 재사용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어린이 벼룩시장 ‘병아리떼쫄쫄쫄’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이 장터는 어린이가 직접 판매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어린이들 스스로 물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장터에서 모인 기부금은 장애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05

05. 네팔 돕기 위한 기증 캠페인 진행

아름다운가게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10일간, 현대백화점 16개 지점에서 기증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11,000여 명의 고객이 기증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9만여 점의 물품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증품은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통해 재판매 되어 약 3천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현대백화점의 5천만 원 기부금과 더해져 총 8천만 원의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네팔의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방한용품과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06. 뷰티풀펠로우 5기 선발

뷰티풀펠로우는 2011년부터 사회혁신기업가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아름다운 가게의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108명이 지원했으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간 총 5차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명을 선발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07. 자원활동 콘텐츠 공모전 개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자원활동의 의미를 담은 사진 및 수기,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습니다. 최우수상 2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은 인도네시아의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 모습을 찍은 사진 '5번의 기도와 웃음'의 김세희 님과 소록도에서의 봉사 경험을 쓴 수기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전 진 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자원활동의 따뜻한 참여 동기를 잘 보여준 두 사람에게는 상품으로 VGC LANGUAGE SHOOL의 '3개월 캐나다 어학연수권' 수강권과 왕복 항공권이 제공되었습니다.



08. 제2회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참여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10월 국내 최대 핸드메이드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 흐름을 확산하고 있는 '핸드메이드'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버려지는 옷, 가죽, 종이, 장난감 등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약 100명의 시민들이 자원순환과 나눔 실천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으며, 참가비는 전액 소외아동 지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09. 아름다운도서관 8호, 9호 개관

필리핀 두 지역에서 아름다운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CJ오쇼핑의 후원으로 필리핀 탈림섬에 8호 도서관을, 11월에는 싱글즈의 후원으로 산티아고 섬에 9호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두 곳 모두 수도인 마닐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교육 시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도서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아동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10. 제10회 나눔씨앗리더십캠프

아름다운가게가 주최하고 PIC가 후원하는 제10회 나눔씨앗리더십캠프가 지난 11월 PIC 사이판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틱움'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각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 중 나눔의 의미에 대해 알고자 하는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중 20명을 선정하여 함께 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매장 오픈 / 이전 오픈



매장 오픈

수원행궁점

2015.01.30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 신원빌딩 1층
T.031-258-1113

천안성정점

2015.03.2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5-9 성정열린상가
1동 1층
T.041-552-0095

원주무실점

2015.09.09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0(무실동 1642-4) 1층
T.033-743-1203

서대문가재울점

2015.09.15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54(북가좌동 449) 1층
T.02-302-2773

역삼점

2015.12.23

서울 강남구 역삼로 132(역삼동 834-7) 1층
T.02-3452-1007



이전 오픈

창원용호점(구 창원중앙점)

2015.01.0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59 스타타워
(용호동 73-37) 대구은행빌딩 1층
T.055-261-1551

순천연향점

2015.01.29

전남 순천시 하대석길 61(연향동) 명설빌딩 1층
T.061-725-8975

숙대입구역점(구 서울역점)

2015.03.2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8-1(남영동 66-4)
T.02-363-8778

안양점(구 명학점)

2015.07.23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51(안양동 627-33)
T.031-466-2262

당신의 마음 속에 자원활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에서 이웃을 돕고 지구를 살리는 자원활동을 시작하세요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란? 물품재사용으로 자원을 순환시키고, 기증품 판매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공익문화창출형 사회적기업입니다
활동원사의 일은?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자원활동 (아름다운가게 매장운영/기증품분류/사무지원 등) 문의(국번없이) 1577-1113 www.beautifulstore.org

